

한 글

(성인용 중급)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마포평생학습관]

책머리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자 대세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인 마포평생학습관에서는 열린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처음으로 발간하는 『한글(성인용)』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배울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와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본 교재는 보통의 비문해자는 물론 한글공부를 막 시작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유용한 학습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동양의 명저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입니다. 본인은 이번에 우리학습관에서 처음 발간하는 『한글(성인용 중급)교재』가 그 동안 성인들이 한글을 깨우치는데 변변한 교재가 없는 현실에서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밝혀 주는 보배로운 거울”의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 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교재발간에 열과 정성을 쏟은 김천수선생님께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마포평생학습관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을 두고 배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익힘의 장으로써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언제 방문해도 포근한 학습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 12월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마포평생학습관장] 강재룡

머 리 글

우리가 살고 있는 21 세기는 너무도 많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지식을 익히고 정보를 얻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글은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말하기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백성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이러한 뜻에도 불구하고 문자 해득을 못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성보다도 여성은 더욱 많았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한글에 담겨 있는 지식과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며 결국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한글 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복지관 전용 교재로써 제작하였고 본 교재 사용으로 국어 해득에 도움을 주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작에 협조해 주신 여러 사람에게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2002 년 2 월

지은이: 김천수 씀

교재의 특징과 학습 방법

- 1)복지관 한글 중급반 성인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2)한글 초급반에서 한층 발전시켜 읽기, 쓰기, 맞춤법 익히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3)국어과의 기초 단계를 가미하여 일기, 편지, 설명문, 생활문, 논설문, 동화, 시 등 그 뜻과 예문을 제시하여 이를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 4)본문 쓰기와 글쓰기를 삽입하여 맞춤법, 낱말, 문장 익히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5)글쓰기를 활용 받아쓰기를 수시로 하여 낱말 문장 맞춤법 익히기를 실용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6)본문의 내용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생활의 지혜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 7)교육과정을 중시하데 지도 교사는 이론적 교수 학습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 8)복지관의 취지를 살려 즐겁고 명랑한 지도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9)한글 해득이 미숙한 어린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차 례

머리글	1
교재의 특징과 학습 방법	2
1.글이란 무엇일까요?	9
①본문 쓰기	9
②낱말 쓰기	10
2.좋은 글은 어떤 것일까요?	12
①본문 쓰기	12
②단어 알아보기	13
③단어 이용하여 글쓰기	14
3.글의 여러 가지 종류	16
①본문 쓰기	16
②글쓰기	17
4.일기란 무엇일까요?	18
①본문 쓰기	18
②글쓰기	19
5.즐거운 하루	20
①본문 쓰기	20
②글쓰기	21
6.옛 일기	22
①본문 쓰기	23
②글쓰기	25
7.편지글은 어떤 글인가요?	27
①본문 쓰기	27
②글쓰기	28

8.아버지께	30
①본문 쓰기	31
②글쓰기	33
9.설명문은 어떤 글인가요?	34
①본문 쓰기	34
②글쓰기	35
10.훈민정음	37
①본문 쓰기	37
②속담 익히기	38
③글쓰기	39
11.기본 자음과 모음	40
①글쓰기	41
12.한글의 자음과 모음	42
①글쓰기	43
13.사전 찾기	44
①글쓰기	45
14.사계절	46
①본문 쓰기	46
②글쓰기	47
15.지구와 달	49
①본문 쓰기	49
②글쓰기	50
16.부모님께 왜 효도하여야 하는가?	52
①본문 쓰기	52
②글쓰기	53

17.말할 때의 예절	55
①본문 쓰기	55
②속담 익히기	56
③날짜 쓰기	57
18.조상들의 생활 모습	58
①본문 쓰기	58
②글쓰기	60
③생활어	61
19.큰 가르침	63
①본문 쓰기	63
②글쓰기	64
20.군자의 즐거움	66
①본문 쓰기	66
②글쓰기	67
21.연날리기	68
①본문 쓰기	68
②글쓰기	70
22.좋은 문학 작품	71
①본문 쓰기	71
②글쓰기	72
23.교우	74
①본문 쓰기	74
②글쓰기	75
24.이성의 길은 넓다	77
①본문 쓰기	77
②글쓰기	78

25.생활문은 어떤 글인가요?	80
①본문 쓰기	80
②글쓰기	82
26.병원 가는 날	83
①본문 쓰기	84
②글쓰기	87
27.지각	89
①본문 쓰기	89
②글쓰기	90
28.언행	92
①본문 쓰기	92
②글쓰기	93
29.인자한 성품	95
①본문 쓰기	96
②글쓰기	98
30.나무	100
①본문 쓰기	101
②글쓰기	102
31.기행문이란 무엇인가요?	104
①본문 쓰기	104
②글쓰기	105
32.경주에서	106
①본문 쓰기	107
②글쓰기	109
33.논설문은 어떤 글인가요?	110
①본문 쓰기	110
②글쓰기	111

34. 좋은 습관	112
① 본문 쓰기	112
② 글쓰기	114
35. 시란 무엇인가요?	115
① 본문 쓰기	115
② 글쓰기	116
36. 고추 잠자리	118
① 본문 쓰기	118
② 질문과 대답	120
③ 글쓰기	121
37. 산버들, 오우가	122
① 본문 쓰기	123
② 글쓰기	125
38. 동화란 무엇인가요?	126
① 본문 쓰기	126
② 글쓰기	127
39. 커다란 무	129
① 본문 쓰기	130
② 글쓰기	133

1.글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합니다.

생각과 일을 줄거리를 세워 글자로
적어 나타낸 것이 글입니다.

① 본문 쓰기

글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사람은 일을 합니다.생각과
일을 줄거리를 세워 글자로 적어 나
타낸 것이 글입니다.

② 낱말 쓰기

국수, 고기, 거지, 구름다리, 그림자
나비, 노래방, 놀이터, 다람쥐, 다리
도끼, 도토리, 모자, 미술, 바지, 벌레
보자기, 보름달, 비탈길, 소나기, 사랑
선풍기, 수박, 숙제, 아가미, 알사탕
사랑하다, 재봉틀, 조랑말, 줄다리기
참기름, 처녀, 총각, 치마바람, 철렁

칼국수, 키다리, 트림, 토란, 하얗다

웃었다, 호박, 호리병, 흘리다, 읽다

밝다, 넓다, 읊다, 엉덩이, 종아리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발가락

손톱, 모자, 장갑, 연필, 공책, 의자

오세요, 분노, 교과서, 교가, 너머

무릎, 책상, 오너라, 며느리, 묘기

2. 좋은 글은 어떤 것일까요?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합니다.

짜임새가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문법이나 맞춤법이 맞아야 합니다.

진실한 글이어야 합니다.

개성적인 글이어야 합니다.

① 본문 쓰기

좋은 글은 어떤 것일까요?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합니다.
짜임새가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문법이나 맞춤법이 맞아야 합니다.
진실한 글이어야 합니다.
개성적인 글이어야 합니다.

② 단어 알아보기

민물고기-->붕어,미꾸라지,피라미
포유류-->곰,호랑이,고래
꽃-->장미,해바라기,나팔꽃
과일-->사과,배,감,포도

③ 단어 이용하여 글쓰기

만든다, 오르다, 빠르다, 되다, 읽다 깨끗하다, 즐겁다, 밝다, 없다, 흐르다 끝나다, 앓다, 늙다, 싫다,
나는 종이 비행기를 ().
산에 () 기분이 좋다.
() 학교에 가자.
나는 군인이 () 좋겠다.
나도 책을 () 수 있다.
청소를 () 해야지.

오늘은 내 기분이 매우 ().

나는 발로 꽃을 ().

내게 () 것을 요구하지 말라.

강물이 () 갑니다.

숙제를 () 놀자.

나는 나쁜 일을 하지 ().

() 사람을 공경해야지.

내가 () 것은 남도 싫어한다.

3. 글의 여러 가지 종류

글을 쓰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

일기, 편지, 생활문, 시, 설명문, 기행문, 논설문, 소설 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① 본문 쓰기

글의 여러 가지 종류
글을 쓰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 일기, 편지, 생활
문, 시, 설명문, 기행문, 논설문, 소설 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② 글 쓰기

아기가 책을 거꾸로 보고 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소가 언덕배기에서 놀고 있다.

딱따구리가 설새없이 나무를 쪼고 있다.

땀에서 짭짤한 맛이 났다.

오늘은 폐품을 내는 날이다.

누나의 핑계라는 노래가 인기 있다.

4. 일기란 무엇일까요?

일기란 자기의 하루 생활 중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일기는 자기 생활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솔직하고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① 본문 쓰기

일기란 무엇일까요. 일기란 자기의
하루 생활 중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일기는 자기 생활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솔직하고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② 글 쓰기

김치가 맛이 잤다.

친구는 저 세상으로 갔다.

싸우고 나서 서로가 발을 꿔었다.

걱정이 없으니까 발을 뺄고 자겠다.

그 사람은 발이 넓어 아는 사람이 많다.

타이어에 구멍이 나 바람이 샀다.

무에 바람이 들어 못 먹게 되었다.

5. 즐거운 하루

3 월 5 일(화요일) 맑음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 공부하러 가는 날이다.
한글 반에서 공부하고 친구와 얘기
한다.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날이었다.

① 본문 쓰기

3 월 5 일(화요일) 맑음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 공부하러 가는 날이다.
한글 반에서 공부하고 친구와 얘기

한다.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였다.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날이였다.

② 글 쓰기

밖에 갔다 왔으니 손을 씻어라.

그 쪽에서는 이제 손을 씻겠다.

오늘 벼베기에 손이 더 필요하다.

까치가 우는 것을 보니 손이 오시겠다.

6. 옛 일기

1 월 16 일

(전략)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신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는 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구나.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 년 같구나.

이순신 <난중일기>의 일부

① 본문 쓰기

옛 일기 1 월 16 일
(전략)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
하지 못하신고.간담이 타고 찢어지
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
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몸에 미

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는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

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구나.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 울부
짚을 따름이다. 하룻 밤 지내기가
1 년 같구나.
이순신 <난중일기>의 일부

② 글 쓰기

더 이상의 길이 없다.
대전 가는 길에 나를 내려주면 돼.
이 길은 넓고 깨끗하구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희망이 있다.

내 작품이 교실 게시판에 붙어있다.

길 옆으로 가면 국기 게양대가 있다.

백화점 휴게실에서 만나자.

성적표를 보니 씩씩한 생각이 들었다.

나와 내 동생은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늠름한 청년의 모습을 보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7. 편지글은 어떤 글인가요?

편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편지는 안부, 위문, 축하, 초대, 감사 등 여러 가지 용건으로 쓴다.

따라서 편지는 정답게 예의를 갖추어서 써야 합니다.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① 본문 쓰기

편지글은 어떤 글인가요. 편지는 멀
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
입니다. 편지는 안부, 위문, 축하, 초대

감사 등 여러 가지 용건으로 쓴다.

따라서 편지는 정답게 예의를 갖추

어서 써야 합니다.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② 글 쓰기

조개 껍데기를 모아 보자.

포도 껍질은 먹지 마라.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날->곡식 낱알, 낮->풀 베는 낮

낮->밝은 대낮, 낮->얼굴

날->날개, 너비->폭, 도로의 너비

넓이->면적, 운동장의 넓이

갑자기 새들이 날아왔다.

이삿짐을 모두 날라라.

개가 새끼를 낳았다.

운동장에 젊은 사람이 많다.

8. 아버지께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와 저도 잘 있어요.

철수는 키도 많이 컸고 자전거도 씩씩
잘 타요. 저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이번 달에 독서 왕으로
뽑혔어요. 빨리 아버지께 상장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실 때는 여러
나라의 예쁜 그림 엽서도 많이 보내
주세요.

제 짝 진아가 그림 엽서를 모으고 있
어요.

할 말은 많이 있으나 이만 줄이겠어요.
아버지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시어요.

2002 년 3 월 일
사랑하는 딸 성미 올림

① 본문 쓰기

아버지께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와 저도 잘 있어요. 철수는 키
도 많이 컸고 자전거도 썩썩 잘 타요
아버지, 저는 이번 달에 독서 왕으로
뽑혔어요. 빨리 아버지께 상장을 보
여 드리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실 때

는 여러 나라의 예쁜 그림 엽서도 많

이 보내 주세요. 제 짝 진아가 그림

엽서를 모으고 있어요. 아버지 몸 조

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저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2002 년 3 월 일

사랑하는 딸 성미 올림

② 글 쓰기

병이 다 나은 할머니를 뵈었다.

우리는 힘들게 산을 넘어 갔다.

우리의 목적지는 산 너머에 있다.

고무줄을 아래로 늘여 보았다.

돈을 한 푼 두 푼 늘려 나갔다.

어머니께서 옷을 다리고 계시다.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9. 설명문은 어떤 글인가요?

설명문은 어떤 사실이나 이치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설명문은 사실이나 이치의 유래, 목적, 조직, 성질, 쓰임, 의미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은 되지 않습니다.

① 본문 쓰기

설명문은 어떤 글일까요? 설명문은
어떤 사실이나 이치를 알기 쉽게 풀
어 쓴 글입니다. 설명문은 사실이나
이치의 유래, 목적, 조직, 성질, 쓰임,

의미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은 되지 않습니다.

② 글 쓰기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열심히 공부함으로 은혜에 보답한다.
여관방에서 노름판이 벌어졌다.
봄에는 즐거운 놀이를 간다.

사람이 쇠뿔에 받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비가 오니 우산을 받치고 간다.

어머니께서 술을 체에 받치다.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아이는 코가 반듯이 생겼다.

입지 않는 옷은 옷걸이에 걸어야 한다.

여름에는 얼음이 많이 팔린다.

10. 훈민정음

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이유로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새로 28 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안히 쓰고자할 따름입니다.

① 본문 쓰기

훈민정음 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이유로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

이 많습니다. 내가 이를 딱하게 생
각하여 새로 28 자를 만들어 사람마
다 쉽게 익혀 편안히 쓰고자할 따름
입니다.

② 속담 익히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③ 글 쓰기

거리가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았다.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름해 보자.

천사의 손가락이 동쪽을 가리켰다.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다.

종이가 갈가리 찢어졌다.

내 걸음이 몹시 늦어 지각했다.

구름이 걷히자 맑은 하늘이 보였다.

11. 기본 자음과 모음

모음 자음	ㄱ	ㅋ	ㆁ	ㄷ	ㄲ	ㄴ	ㄷ	ㄴ	ㅇ	ㅣ
ㄱ										
ㄴ										
ㄷ										
ㄹ										
ㄴ										
ㄷ										
ㄴ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자음과 모음 바르게 읽기

자음 : 기억, 니은, 디근, 리을, 미음, 비읍, 시읏,
이응, 지읏, 치읏, 키읏, 티읏, 피읏, 히읏

모음 :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① 글 쓰기

밀양을 거친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다.

형제끼리 총을 겨누었던 전쟁의 비극.

1반과 2반이 축구로 승부를 겨루었다.

가재는 게 편이다.

간에 붙고 쓸개에 붙는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나의 실답지 않은 태도에 그는 실망이 많았다.

12. 한글의 자음과 모음

자모음 순서	자 음			모 음		
	자음 (받침)	쌍자음 (받침)	겹자음 (받침)	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1	ㄱ	ㄲ	ㄱㅅ	ㅏ	ㅏ	ㅑ
2	ㄴ		ㄴㅈ	ㅑ	ㅑ	ㅓ
3	ㄷ	ㄸ	ㄷㅎ	ㅓ	ㅓ	ㅕ
4	ㄹ		ㄹㄱ	ㅕ	ㅕ	ㅗ
5	ㅁ		ㄹㅁ	ㅗ	ㅗ	ㅛ
6	ㅂ	ㅃ	ㄹㅂ	ㅛ	ㅛ	ㅜ
7	ㅅ	ㅆ	ㄹㅅ	ㅜ	ㅜ	ㅠ
8	ㅇ		ㄹㅌ	ㅠ	ㅠ	ㅡ
9	ㅈ	ㅉ	ㄹㅈ	ㅡ	ㅡ	ㅣ
11	ㅊ		ㄹㅊ	ㅣ	ㅣ	
12	ㅋ		ㅁㄱ			
13	ㅌ		ㅂㅅ			
14	ㅍ					
15	ㅎ					
계	14	5	12	10	10	11
총계	62					
위 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임						

① 글 쓰기

나는 온갖 책을 널리 읽었다.

너의 뜻을 뚜렷이 밝혀라.

흔적도 없이 죄다 없어져 버렸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찾았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우리는 굶은 날씨에 여행을 하였다.

물에 빠지면 짚이라도 잡는다.

13. 사전 찾기

*사전 찾는 방법

가. 올림말을 찾는 순서를 안다.

- ▶ 첫소리,가운데소리,끝소리(받침)의 차례를 찾는다
▶ 첫소리,가운데소리,끝소리(받침)의 차례를 안다
(보기):충

첫소리...ㅈ(닿소리)

가운데소리...ㄷ(홀소리)

끝소리(받침)...ㅇ(닿소리)

- ## ▶ 첫소리(닿소리)의 차례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ㅌ ㅍ ㅎ

- ### ▶ 가운데소리(홀소리)의 차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ㅣ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나. 찾고자 하는 말은 반드시 으뜸꼴을 찾는다
(보기)

- ▶ 귀엽고,귀여운,귀여워,귀여우니....>귀엽다
▶ 간다,갑니다,갔습니다,갔었다...>가다

*다음 낱말을 으뜸꼴로 바꾸어 보세요

어려운...

답아...

찾는...

뿌렸다...

① 글 쓰기

나는 엉겁결에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책이 두꺼운데 값은 의외로 싼다.

얼굴이 엷었다고 놀려서는 안 된다.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열없이 웃었다.

도둑은 주인에게 들키자 줄행랑을 놓았다.

민주 시민으로서 공지를 지녀야 한다.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14. 사계절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여름에는 푸른 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앙상한
가지를 포근히 덮어 줍니다.

① 본문 쓰기

사계절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
합니다. 봄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
아납니다. 여름에는 푸른 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가을에는 울긋

불긋한 단풍이 산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앙상한

가지를 포근히 덮어 줍니다.

② 글 쓰기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도록 하세요.

고르지 못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여라.

운동장을 잘 고르고 나니 놀기에 좋아요.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우리 말을 잘 같고 닦자.

일이 잘못되면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

눈병에 잘 듣는 약을 사 오너라.

양식 있는 행동을 해라.

이른 새벽 어스름에 길을 떠났다.

나는 유창한 말솜씨를 지닌 사람이 좋다.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자.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15.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은 그 모양이 둥글며 팽이처럼 빙글빙글 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번 돌고, 달은 한 달에 한 번 돈다.

또 지구에는 공기와 물이 있어 생물이 살 수 있지만 달에는 공기와 물이 없어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① 본문 쓰기

지구와 달은 그 모양이 둥글며 팽이
처럼 빙글빙글 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번 돌고, 달은 한 달에 한

번 돈다. 또 지구에는 공기와 물이

있어 생물이 살 수 있지만 달에는 공

기와 물이 없어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② 글 쓰기

나는 총소리에 놀랐다.

우리는 그를 놀래 주었다.

토끼가 짹짹 뛰어들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왔구나.

나는 망치에 손을 다치었다.

집에 와보니 문이 닫혀있다.

나는 그 물건을 달라고 하였다.

우리는 화난 그 사람을 달래었다.

오늘밤은 여기서 드새고 가자.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몹시 드세다.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

그이와 결혼하려 한다.

16. 부모님께 왜 효도하여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잘 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시다.

내가 가장 잘못 될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시다.

나의 모든 잘 잘못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과 염려를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시다.

① 본문 쓰기

부모님께 왜 효도하여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잘 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시다.

내가 가장 잘못 될 때 가장 슬퍼하
시는 분은 부모님이시다. 나의 모든
잘 잘못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과
염려를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시다.

② 글 쓰기

할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하셨습니다.
떡구름이 끼더니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
근면, 검소, 미덕은 우리 민족의 미덕이다.

선희는 용돈을 적게 주는 아버지께 불만이 많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나는 시험 전날 조바심이 나서 밤새 잠을 설쳤다.

철수의 부지런함은 천성인가 보다.

그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그분의 고아한 성품에 감동하였다.

이장 영감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17. 말할 때의 예절

- *내 말을 진지한 태도로 들어준다.
- *내 말이 자기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들어준다.
- *나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준다.
- *재미있는 말로 분위기를 즐겁게 한다.
-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는다.

① 본문 쓰기

말할 때의 예절 내 말을 진지한 태도
로 들어준다. 내 말이 자기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들어준다. 나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준다. 재미있는
말로 분위기를 즐겁게 한다. 다른 사
람의 흥을 보지 않는다.

② 속담 익히기

광에서 인심 난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③ 낱씨 쓰기

1일<-->하루	2일<-->이틀
3일<-->사흘	4일<-->나흘
5일<-->닷새	6일<-->엿새
7일<-->이레	8일<-->여드레
9일<-->아흐레	10일<-->열흘

18. 조상들의 생활 모습

- *명절 때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이사를 가면 떡을 돌려 인사한다.
- *경(기쁜 일)조(슬픈 일)사에 일손을 나누거나 물품을 보내서 돕는다.
- *이웃 집 어른을 공대한다.
- *이웃집을 ‘이웃사촌’으로 부를 만큼 서로 사이 좋게 지낸다.

① 본문 쓰기

조상들의 생활 모습 명절 때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사를 가면 떡을 돌려 인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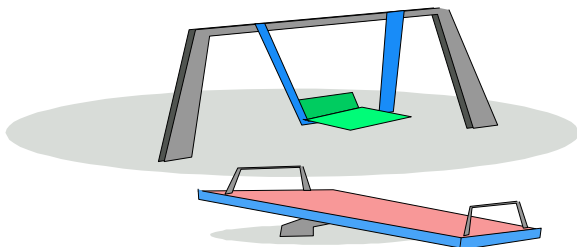
경(기쁜 일)조(슬픈 일)사에 일손을

나누거나 물품을 보내서 돕는다.

이웃 집 어른을 공대한다. 이웃집을

‘이웃사촌’으로 부를 만큼 서로 사이

좋게 지낸다.



② 글 쓰기

우리 선생님은 문학에 소양이 깊으시다.

적선을 많이 한 사람은 큰복을 받게 된다.

철수는 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흰 눈이 소담스럽게 쌓였다.

일이 잘 풀리는데 괜스레 걱정을 했구나.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 보자.

불길은 그 집을 송두리째 삼켜 버리고 말았다.

③ 생활어

가족관계	사위	숙모	처남	매부
인척관계	시어머님	시아버님	친정	
시조모님	시숙	시아주버님	시댁	
며느리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	
숙부	시누이	장녀	차녀	시어른
처형	부자	모자	형제	자매
				삼촌
질부	질녀	조카	사돈	장인
				장모

제수씨	형수님	형부	매형	자형
이력서	입학원서	성명	이름	성별
남녀	생년월일	주소	본적	학력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회사
사업	상업	택시	전철	노선 버스
지하철	우편번호	전화번호	우체국	
초가집	기와집	한옥	양옥	빌라
아파트	연립	임대	월세	사글세

19. 큰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

자비를 베풀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예수의 가르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공자의 가르침

중국에서 태어난 공자는 어짐(仁)을 가르쳤다.

① 본문 쓰기

큰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 자비를 베풀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예수의 가르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공자의
가르침 중국에서 태어난 공자는 어짐
(仁)을 가르쳤다.

② 글 쓰기

곧이어 장중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두 사람은 은연중에 정이 깊어졌다.
긴 겨울 동안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나무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그 노래는 가락이 매우 단조로운 편이다.

아저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깨끗함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성미.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찾았다.

무 꺾듯이 나무를 꺾었다.

참 꺾듯한 존대 말을 듣는구나.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20. 군자의 즐거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벗이 있어 먼데서 찾아 왔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니 이것이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논어)

① 본문 쓰기

군자의 즐거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얼마
나 즐겁습니까? 벗이 있어 먼데서 찾아 왔
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니 이것이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② 글 쓰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정성 들여 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다소 방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굳은 땅에 물이 쏜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21. 연 날리기

연 날리기는 지금도 널리 행해지는 민속 놀이로 오락성과 신앙성의 두 면을 지니고 있다. 추위를 이기고 연을 하늘 높이 띄우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과 나쁜 것을 연에 실어 날려 보낸다는 믿음이 그 것이다.

오늘날은 연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로 바뀌어 가고 있다.

①본문 쓰기

연 날리기는 지금도 널리 행해지는 민속
놀이로 오락성과 신앙성의 두 면을 지니고

있다. 추위를 이기고 연을 하늘 높이 띄우

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과 나쁜 것을 연에

실어 날려보낸다는 믿음이 그 것이다.

오늘날은 연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

로 바뀌어 가고 있다.

② 글 쓰기

우리의 우정이 두텁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지 마라.

개를 두들겨 패는 것은 몹쓸 짓이다.

나의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사물함에서 책을 모두 들어냈다.

학교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하였다.

22. 좋은 문학 작품

좋은 문학 작품은 아름다움을 통하여 감동을 준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넓고 잔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듯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은 우리의 마음속을 깊고 넓게 감동시킨다.

①본문 쓰기

문학 작품 좋은 문학 작품은 아름다움을
통하여 감동을 준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넓고 잔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듯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은
우리의 마음속을 깊고 넓게 감동시킨다.

② 글 쓰기

나는 가진 돈이 부족하다.
나는 갖은 고생을 견뎌 냈다.
나라의 세금이 잘 걷히었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참외가 오래 되어 곱았다.

그날 오후가 되어 비가 그쳤다.

여기가 한국의 남쪽 끝이다.

나는 너무 일을 해서 병이 났다.

이 책상의 높이가 낮다.

철수보다 내가 더 낮다.

어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23. 교 우

- *친구는 반드시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술과 음식을 먹을 때의 형제는 많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
- *길이 머니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오래 되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

① 본문 쓰기

교우 친구는 반드시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술과 음식을 먹을 때의 형제는 많지만 급하

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

길이 머니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오

래 되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② 글 쓰기

엄마의 공부하라는 등쌀에 괴롭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놀러 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철수.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용돈이래야 1000 원이 안 된다.

중학생이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중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자.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 청년.

오늘 일을 모두 마쳤다.

문제를 모두 맞혔다.

24. 이성의 길은 넓다

천리를 따르면 마음이 밝아진다.
욕망을 따르면 잠깐 사이에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하늘의 이치란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용납 받지 못하면 바로 하늘이 응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채 근 담)

① 본문 쓰기

이성의 길은 넓다 천리를 따르면 마음이
밝아진다. 욕망을 따르면 잠깐 사이에 가시
밭길을 걸어야 한다. 하늘의 이치란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용
납 받지 못하면 바로 하늘이 응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② 글 쓰기

그 녀석은 부끄러워 발개지고 있었다.
저 물건들 중 내 모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 신동은 네 살에 벌써 시를 지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물을 맛있게 무친다.

땅에 묻힌 보물을 찾아라.

독립 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생님.

우산을 받치고 겨우 소나기를 피했다.

자동차에 받히고도 겨우 살아 남았다.

철수는 두 살바기다.

내가 발견한 것이니까 양보할 수가 없다.

25. 생활문은 어떤 글인가요?

생활이란 살아서 활동하는 의미입니다.
생활문이란 일상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감으로 하여 쓴 글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은 받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은 경험을 기반으로 쓰는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표
현할 수 있는 글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쓰는 자유로운 글이
지만 짜임은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문 쓰기

생활문은 어떤 글인가요. 생활이란 살아서
활동하는 의미입니다. 생활문이란 일상 생
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감으로 하

여 쓴 글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은 받지 않
으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은 경험을 기반으로 쓰는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자
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쓰는 자유로운 글
이지만 짜임은 갖추어야 합니다.

② 글 쓰기

그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먹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놀랐던지 땀이 흠뻑 났다.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의 생애를 되돌아보니 반성할 게 많다.

반장이 줄이 바른가 뒤돌아 보았다.

이불이 두껍다.

26. 병원 가는 날

오늘은 예방 주사를 맞으러 병원 가는 날입니다. 병원에는 돌이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돌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누나가 돌이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끼웠습니다.

돌이는 의사 선생님께로 갑니다. 돌이 보다 먼저 온 친구가 큰 소리로 울면서 주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돌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돌이의 입안도 보고 눈도 들여다 보고 청진기로 가슴을 대 보기도 했습니다. 돌이는 자꾸만 겁이 나기만 합니다.

돌이가 주사실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돌이는 조금 전 울고 나간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돌이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누나가 주사기를 들고 자, 조금 아파도 참아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돌이는 입을 꼭 다물고 얼굴은 찡그렸지만 씩씩하게 주사실을 나왔습니다.

① 본문 쓰기

병원 가는 날 오늘은 예방 주사를 맞

으러 병원 가는 날입니다. 병원에는

돌이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와 있습

니다. 돌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간

호사 누나가 돌이의 겨드랑이에 체온

계를 끼웠습니다.

돌이는 의사 선생님께로 갑니다. 돌

이보다 먼저 온 친구가 큰 소리로 울

면서 주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돌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

님은 돌이의 입안도 보고 눈도 들어

다 보고 청진기로 가슴을 대 보기도

했습니다. 돌이는 자꾸만 겁이 나기

만합니다. 돌이가 주사실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돌이는 조금 전

울고 나간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돌

이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누

나가 주사기를 들고 자, ‘조금 아파도

참아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돌이는 입을 꼭 다물고 얼굴은 찡그렸

지만 씹씹하게 주사실을 나왔습니다.

② 글 쓰기

일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기다린다.

살림이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평소에 언행이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

백두산 상봉에 태극기를 꽂다.

한글의 본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철수는 화가 나서 문을 부수었다.

나는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나는 어제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렸다.

마당에서 빨래 줄을 끈으로 매었다.

나는 짐을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

우리는 여관에서 하루 밤을 묵었다.

경찰이 죄인을 끈으로 묶었다.

미련하고 못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27. 지 각

철수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정신없이 세수를 하고, 허겁지겁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조용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선생님께서 화가 나신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① 본문 쓰기

지각 철수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
습니다. 정신없이 세수를 하고, 허겁지
겁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

니 조용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선생님께서 화가 나신 얼굴로 쳐다보
셨습니다.

② 글 쓰기

아궁이에 불을 댕겼다.
나는 넓은 데로 나가 살고 싶다.
나는 들은 대로 말하고 있다.
못된 짓을 하여 스스로 화를 불러들였다.

그 녀석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말았다.

우리 집 개는 점박이다.

고양이가 새끼를 배어 있었다.

낮으로 나무를 베고 있었다.

베개를 왜 베지 않고 자니.

다리를 힘껏 벌리고 있었다.

너는 쓸데없이 일을 많이 벌인다.

조그만 것을 아끼다 큰 손해를 본다.

28. 언 행

말은 행동과 다르게 하지 말며, 행동은 말과 다르게 하지 말라.

말과 행동이 서로 들어맞는 것

이것을 올바른 사람이라 이르고, 말과 행동이 서로 어그러지면 이것을 소인이라 말한다.

① 본문 쓰기

언행 말은 행동과 다르게 하지말며,
행동은 말과 다르게 하지 말라. 말과
행동이 서로 들어맞는 것. 이것을 올

바른 사람이라 이르고, 말과 행동이

서로 어그러지면 이것을 소인이라 말한다.

② 글 쓰기

철수는 동생에게 운동을 시키었다.

국이 너무 뜨거워 식히었다.

철수는 머리숱이 많다.

날이 추워 숯불을 피웠다.

효자라도 오랜 병 간호에 견디기 어렵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이였다.

밤사이에 눈이 많이 싸이였다.

할머니께서 떡을 시루에 안치였다.

할아버지께서 철수를 의자에 앉히였다.

이놈 ,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우리는 합격자 명단을 알렸다.

철수는 몸이 말라 너무 여위였다.

철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였다.

29. 인자한 성품

“웬 일로 배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느냐?”

“예, 요 이웃에 사는 녀석이 배나무에 돌팔매질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녀석을 혼내주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 그럼 담 밖에도 많이 떨어져 있느냐?”

“거기에는 몇 개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광에 가서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하인이 바구니를 가져오자, 황정승은 다시 말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것들을 담아라.”

하인은 바구니에 배를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바구니에 담아 놓고 보니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곧 그 아이네 집에 가져다 주어라.”

① 본문 쓰기

인자한 성품 “웬 일로 배가 이렇게 많
이 떨어져 있느냐?” “예, 요 이웃에
사는 녀석이 배나무에 돌팔매질을 헤
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녀석
을 혼내주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 그럼 담 밖에도 많이 떨어

져 있느냐 ?” “거기에는 몇 개 안 떨

어졌습니다.” 그러면 ,광에 가서 바구

니를 가져오너라. 하인이 바구니를

가져오자, 황 정승은 다시 말하였습니다

다. “거기다가 이것들을 담아라.”

하인은 바구니에 배를 주섬주섬 주

워 담았습니다. 바구니에 담아 놓고

보니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까요? ” “지금 곧 그 아이네 집에 가
져다 주어라.”

② 글 쓰기

철수는 청소를 깨끗이 하는 버릇이 있다.
철수는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가슴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이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본다.

철수는 누워서 몸을 뒤척거렸다.

나는 아저씨를 우연히 만났다.

나는 온갖 책을 찾아보았다.

흔적도 없이 죄다 없어져 버렸다.

철수는 더듬거리는 말버릇이 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

30. 나 무

나무는 덕을 가졌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떠 보는 일도 없다.

-이양하-

① 본문 쓰기

나무는 덕을 가졌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
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
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
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과 불만족
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
에 눈떠 보는 일도 없다.

② 글 쓰기

그 사람 말 잘 하던데.
나는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팔이 다치어 오죽 아프겠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뿐이다.

김장에는 새우젓이 많이 있어야 한다.

철수는 엄마의 젖을 먹었다.

이 땅은 주검이 묻혀 있는 땅이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31.기행문이란 무엇인가요?

기행문이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일, 느낀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자기의 생활을 되돌아 보게 하는 기회도 줍니다.

① 본문 쓰기

기행문이란 무엇인가요. 기행문이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일 느
낀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자기의 생활을 되돌아
보게 하는 기회도 줍니다.

② 글 쓰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베개를 베고 누우니 편하구나.

꽃 봉오리가 탐스럽다.

저 산 봉우리를 넘어 가자.

나는 편지를 부치고 왔다.

나는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

나이 들어 시작한 일에 열심히 몰두한다.

32. 경주에서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햇살에 눈이 부셨다.

‘아! 토함산 동쪽 바닷가에서 해 뜨는 것을 보기로 했는데…….’ 라는 생각이 번쩍 났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 있었다.

해돋이 보기는 다 틀린 것 같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한 후 버스를 타고 석굴암으로 출발했다.

석굴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흔아홉 구비라고 한다.

석굴암의 불상과 부조를 구경하였다.

석굴암을 바라보니 마치 어머니의 얼굴을 보듯 인자함을 느꼈다.

① 본문 쓰기

경주에서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니 햇살에 눈이 부셨다. ‘아! 토함산

동쪽 바닷가에서 해 뜨는 것을 보기

로 했는데…….’ 라는 생각이 번쩍 났

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 있었다.

해돋이 보기는 다 틀린 것 같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한 후 버스를 타

고 석굴암으로 출발했다. 석굴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흔아홉 구비라고 한

다. 석굴암의 불상과 부조를 구경하

였다. 석굴암을 바라보니 마치 어머

니의 얼굴을 보듯 인자함을 느꼈다.

② 글 쓰기

선생님께서 회의에 부치는 글을 읽으셨다.

나는 요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붙이고 있다.

우표를 봉투에 붙였다.

미화부가 그림을 게시판에 붙인다.

싸움을 붙이는 것은 비겁하다.

종이에 불을 붙인다.

애쓰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

33. 논설문은 어떤 글인가요?

논설문이란 어떤 사실이나 문제에 대해 자기의 올바른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워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하는 글입니다.

① 본문 쓰기

논설문은 어떤 글인가요	논설문이란
어떤 사실이나 문제에 대해 자기의	
올바른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워 다	
른 사람이 따르도록 하는 글입니다.	

② 글 쓰기

봄이 오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우리 아버지는 미장이 일을 하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멋쟁이 었다.

산을 넘어 서울에 갔다.

저 산 너머에 고향이 있다.

봄이 되면 꽃 봉오리가 피어오른다.

저 산봉우리가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

34.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좋은 습관을 기르면 커서도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예의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① 본문 쓰기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합
시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

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이 있습니다. 어려서 좋은 습관을 기

르면 커서도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

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예의를 갖

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습

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② 글 쓰기

그걸 사고 싶다마는 돈이 모자란다.

너만은 그런 짓 하지 마라.

나는 목을 낮추어 앉았다.

우리의 몫이 너무 적다.

몸이 다쳐 붓고 말았다.

나는 취직 시험에 붙었다.

나쁜 사람이 물건을 부수었다.

35. 시란 무엇인가요?

시는 문학에 한 분야입니다.

사람이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함축성 있는 말로 운율을 살려
쓴 글을 시라고 합니다.

시에는 자유시와 정형시가 있습니다.

① 본문 쓰기

시란 무엇인가요 시는 문학에 한 분
야입니다. 사람이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함축성 있는 말로
운율을 살려 쓴 글을 시라고 합니다.

시에는 자유시와 정형시가 있습니다.

② 글 쓰기

한쪽으로 기울어져 비스듬하게 섰다.

내 형제는 비스듬하게 생겼다.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옷이 얇아 속살이 비친다.

나는 철수에게 용서를 빌었다.

무슨 일이거나 서로 뜻이 맞아야 잘 된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빌어먹었다.

머리를 빗고 가거라.

나는 빗을 얻어 썼다.

어머니께서 송편을 빗고 있었다.

빛이 밝아 눈이 부시다.

나는 울분을 삭이며 살았다.

아저씨가 도장을 새기었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36. 고추 잠자리

고추 잠자리가
빠알간 가을을 등에 업고
돌아다녔다.

사과밭으로
고추밭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는 곳마다
빠알장게 물이 들었다.

고추 잠자리는 어느 날
바지랑대 끝에 앉았다가
슬그머니
저녁 노을 속으로 숨어 버렸다.
빠알간 가을을 등에 업고.

-방원조 -

①본문 쓰기

고추 잠자리가 빠알간 가을을 등에

업고 돌아다녔다. 사과밭으로 고추밭

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는 곳마다

빠알갹게 물이 들었다. 고추 잠자리는

어느 날 바지랑대 끝에 앉았다가

슬그머니 저녁 노을 속으로 숨어 버

렸다. 빠알간 가을을 등에 업고.

② 질문과 대답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1연의 빠알간 가을은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인가요?
4연의 빠알강계 물이 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구절이 있는 연은 어디인가요?
이 시의 제목을 붙여 보세요.

③ 글 쓰기

섬섬한 마음에 그녀를 밀치고 나왔다.

철수는 손을 지그시 당기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신사다.

우리는 선생님의 의견을 좇았다.

경찰이 도둑을 쫓았다.

이 물건은 기한 지난 물건이다.

철수는 어렵게 지내고 있다.

37. 산버들 , 오우가

산버들

산버들 가지를 가려 꺾어서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 놓고 보십시오. 그 버들가지가 밤비를 맞고 새잎이 돋아나거든, 그것이 나인 듯 생각해주십시오.

- 홍량 -

오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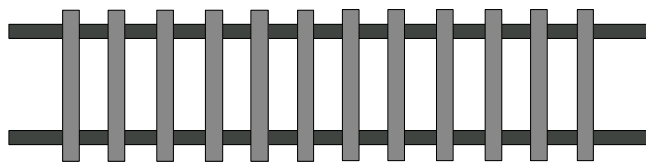
나의 벗이 몇이나 있나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로다.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그만두자 이 다섯밖에 또 다른 것을 더하여 무엇하겠는가.

- 윤선도 -

① 본문 쓰기

산버들 가지를 가려 꺾어서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 놓고
보십시오. 그 버들가지가 밤비를 맞
고 새잎이 돋아나거든 그것이 나인
듯 생각해주십시오.
나의 벗이 몇이나 있나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로다. 동
산에 달이 떠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
갑구나. 그만두자 이 다섯밖에 또 다
른 것을 더하여 무엇하겠는가.



② 글 쓰기

땅이 굳어 물이 많이 고였다.

철수는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교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청년의 불량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났다.

이사 가기 위해 짐을 밖으로 들어냈다.

오늘 저녁 안에 일을 마쳤다.

어려운 시험 문제를 모두 맞혔다.

38.동화란 무엇인가요?

동화란 어린이에게 들려주거나 읽히기 위하여 지은 이야기입니다.

동화를 읽으면 즐겁습니다. 동화를 읽으면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가 읽으면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① 본문 쓰기

동화란 무엇인가요? 동화란 어린이에
게 들려주거나 읽히기 위하여 지은
이야기입니다. 동화를 읽으면 즐겁습
니다. 동화를 읽으면 많은 교훈을 줍

니다. 특히 어린이가 읽으면 인격 형

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② 글 쓰기

그는 이룰테면 살아 있는 역사책이다.

선생님께 이룰 테면 일러 보라.

밥을 급히 먹으면 안 좋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살아라.

겉보기보다 그 내용이 훌륭하다.

학생은 연필을 집어 글을 썼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나는 옷 입은 채 물에 들어갔다.

철수는 아는 체를 안 한다.

나는 헤어진 옷을 입었다.

전쟁 때문에 형제간에 헤어지고 말았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39. 커다란 무

옛날 옛날에 당나귀가 무씨를 뿌렸습니다. 무는 커다랗게 자랐습니다. 당나귀가 무를 킁킁!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 다. “얼룩소야 ,나 좀 도와 줘!”

당나귀와 얼룩소는 영차영차! 무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도 무는 꿈쩍하지 않았습 니다. “염소야, 우리 좀 도와 줘!” 당나귀 와 얼룩소와 염소는 영차영차! 무를 잡아 당겼습니 다.

그래도 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 다.

“고양이야, 우리 좀 도와 줘 !”

당나귀, 얼룩소, 염소, 강아지 그리고 고양 이는 영차영차! 무를 잡아 당겼습니 다. 그 래도 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 다. 다시 고 양이가 강아지를 잡아당겼습니 다. 강아지 가 염소를 잡아당겼습니 다. 염소가 얼룩소 를 잡아당겼습니 다. 얼룩소가 당나귀를 잡 아당겼습니 다. 당나귀가 무를 잡아당겼습 니다. 커다란 무가 쑥 뻗혔습니 다.

“야! 뻗혔다!” 커다란 무로 맛있는 반찬 을 만들었습니 다. 남남 맛있게 밥을 먹었 습니 다.

① 본문 쓰기

커다란 무 옛날 옛날에 당나귀가 무
씨를 뿌렸습니다. 무는 커다랗게 자
랐습니다. 당나귀가 무를 킁킁! 잡아
당졌습니다.그러나 무는 꿈쩍하지 않
았습니다.“얼룩소야 ,나 좀 도와 줘!
당나귀와 얼룩소는 영차영차! 무를
잡아당졌습니다. 그래도 무는 꿈쩍하

지 않았습니다. “염소야, 우리 좀 도
와 줘!” 당나귀와 얼룩소와 염소는
영차영차! 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야,우리 좀 도와 줘 !”당나귀,
얼룩소, 염소,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는 영차영차! 무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도 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양이가 강아지를 잡아당겼습

니다. 강아지가 염소를 잡아당겼습니

다. 염소가 얼룩소를 잡아당겼습니

다. 얼룩소가 당나귀를 잡아당겼습니

다. 당나귀가 무를 잡아당겼습니다.

커다란 무가 쑥 뽑혔습니다.

“야! 뽕혔다!” 커다란 무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남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② 글 쓰기

그 먼 데를 그새 갔다 왔냐?

그 새를 못 참아서 불평하느냐?

나는 너 보고 싶어 왔다.

누가 너보고 일하라고 했냐?

얼굴은 예쁜데 마음씨가 나쁘다.

나는 가까운 데서 왔다.

옷이 큰지 작은지 입어 봐라.

우리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

집에 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

착한 사람은 나 밖에도 많이 있다.

이것은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다.

앞 뒤 순서가 뒤바뀌었다.

『한글(성인용 중급)』 교재

발 행 2002년 12월 26일 발행
발행인 마포평생학습관장
발행처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마포평생학습관]
지은이 김 천 수(금빛평생교육봉사단)
저작권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마포평생학습관]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41-1
전 화 (02) 3141-6988, 3142-2708(501~4)
FAX (02) 3141-4767
www.lll.or.kr(서울) -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인 쇄 세원출판사 ☎ 2265-1141